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박상*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12. 24(토) ~ 2017. 1. 21(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학교 위치는 시내랑 좀 떨어져있지만 놀러 나가거나 쇼핑을 하러 가기에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학교 바로 밑에 줄리비라는 유명한 패스트푸드 점이 있고, 근처에 마사지 샵,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정도 거리에 시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과일도 싸게 살 수 있고 음식점도 있고 술집도 있어서 편했습니다. 학교 내 시설은 생각보다는 괜찮았지만 한국에 비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화장실이 많이 열악해서 불편했습니다. 그 외에는 수업강의실이나 다른 시설에 대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친절하셨고 수업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파견된 학생들 뿐만 아니라 현지의 초, 중, 고등학생도 함께 학교 건물을 이용했는데 부끄러워하면서 한국어로 인사해줍니다.</p>
수업	<p>1:1수업은 Speaking1, Speaking2, Writing1 수업을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친절하셨고 가끔 너무 졸리거나 지루해서 수업 듣기 힘들 때는 같이 영어게임도 하면서 즐겁게 수업 들었습니다. Speaking1 수업에는 주제에 대한 글을 읽고 문제에 대답을 하는 식의 수업이었고 Speaking2 수업은 영어발음을 연습하고 단어를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Writing1 수업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실용적인 글쓰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룹 수업은 소그룹, 대그룹으로 나뉘어져있는데 소그룹은 주로 Speaking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한명 한명씩 대답하거나 상황극 같은 활동을 했습니다. 대그룹은 3개의 수업을 들었는데 주로 영상을 보거나 노래를 듣고 가사를 적는 Listening&Writing 수업이었고 TOEIC Speaking 수업에서는 지문을 읽는 연습을 하고 질문에 제한시간 내에 대답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룹 수업에서는 마피아 같은 게임도 많이 했습니다.</p> <p>배치고사 성적으로 그룹과 1:1수업 수준이 정해집니다. 과제는 매주 에세이가 있습니다. 에세이 책에 주제가 정해져 있으니 그거에 맞게 작문하시면 됩니다. Writing1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면 따로 고칠 필요 없이 그대로 내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 단어시험을 보는데 어렵지 않아서 크게 부담되지 않았습니다.</p>

Activity	<p>저는 민도로 섬, 마닐라 투어, 따가이따이 화산섬에 갔습니다.</p> <p>민도로 섬은 차를 타고 가서 배를 타는데 한시간정도 탄 것 같습니다. 통통배 수준이라서 많이 흔들리니 배 멀미가 심한사람은 약을 챙기던지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갈 때는 옷과 선크림, 화장품 같은 기본적인 것만 챙겨갔고 술이 비싸다고 해서 가기 전에 미리 사갔습니다. 수영복이나 선글라스, 쪼리 같은 것들은 가서 구입했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샀습니다. 액티비티는 크레이지UFO, 플라잉 피쉬, 제트 스키를 탔는데 그중 제트 스키가 가장 좋았습니다. 아침, 점심은 컵라면을 먹거나 사먹었고 저녁은 제공해줬는데 바베큐같은 고기가 나왔고 과일도 나왔습니다. 맛있었습니다.</p> <p>마닐라 투어는 대그룹과 함께 갔는데 마닐라 시내에 있는 인트라무로스, 리잘 파크, 성당에 갔습니다. 밴을 타고 이동해서 편했습니다. 물,우산은 필수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서 걷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닐라 투어는 일찍 끝나서 MOA에 가서 밥을 먹고 시간을 보냈습니다.</p> <p>따가이따이는 차를 타고 가서 다시 잠깐 15분정도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말 타기는 생각보다 재밌었지만 마부와 말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이 가파르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밥은 뷔페식이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건기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소나기가 가끔 내렸습니다. 주로 실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더워서 힘든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낮에는 햇빛이 많이 뜨거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덥지는 않았습니다.
안전	안전을 많이 걱정했는데 기숙사, 학교 안에는 항상 가드가 지키고 있었고 쇼핑몰이나 음식점에도 가드가 있었고 길거리에도 교통경찰이 많아서 그렇게 위험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항상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근처에 있는 시장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돈을 달라고 하거나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반응해주면 계속 따라오니까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려들어서 켜안거나 만지면서 훔쳐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메는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다니지 말고 꼭 물려서 다니는 게 좋습니다.
숙소	<p>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2인 1실인 신 기숙사를 사용했습니다. 기숙사는 좁은 편이었고 화장실이 특히 좁아서 샤워하는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화장실 변기나 문, 환풍기 같은 시설 고장이 잦았지만 얘기하면 거의 바로 고쳐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통금시간이 10시라서 일찍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가드</p>

	들은 친절했고 먼저 인사도 해줘서 좋았습니다. 처음 신기숙사 빨래 업체는 엉망이라 옷을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구기숙사 빨래 업체에 맡기고 나서부터는 빠르고 편해서 좋았습니다.
식사	학교식당(O) 홈스테이 () 외부식당 (O)기타() 학교 식당은 한식으로 나오는데 주로 평일 점심, 저녁은 학교 식당에서 먹었고 주말에는 놀러나가서 외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학교 식당은 맛은 있었지만 부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외부 식당은 거의 괜찮았습니다. 뷔페는 많이 추천하는 곳으로 갔는데 음식 맛도 별로고 음식의 질이나 위생상태도 많이 별로였습니다. 뷔페는 되도록 가지마세요
교통	기숙사가 학교 바로 앞이라서 수업 가기에는 편합니다. 놀러 갈때는 주로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우버 택시나 그랩 택시를 이용하면 편하게 놀러 갈 수 있습니다. 점심, 저녁 시간 때에는 차가 많이 막혀서 2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8시~8시 30분 정도부터는 차가 많이 막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은 몇 번 타보지 않았습니다. 좁아서 많이 불편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갈 때 타기는 좋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기숙사보증금	69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480,000	출국 전 달러 환전
현금(원)	51,000	폐소 남은 사람에게 구입
카드	51,000	카드로 물품 구입
합계	582,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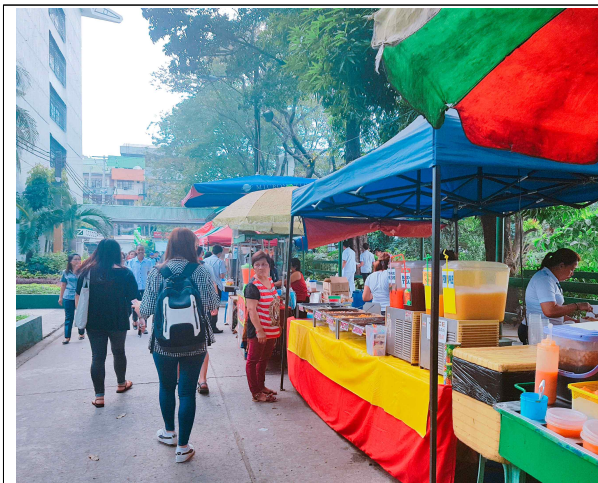
<p>환전은 달러로 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전 할 때 꼭 한 번에 전부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SM NORTH(처음에 다 같이 환전하러 가는 몰)이 가깝고 한 달 동안 있다 보면 MOA나 다른 지역에 있는 쇼핑몰에 자주 가게 되는데 쇼핑몰 마다 환전소가 있어서 필요한 만큼 환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편의점이나 작은 가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카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큰 몰에서는 대부분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ATM에서 뽑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200페소(약5000원)정도의 수수료가 붙으니깐 다른 사람하고 같이 뽑아서 수수료를 나누던지 한 번에 큰 금액을 뽑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7D 나 세부 건망고, 조비스 바나나칩은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아서 자주 가는 SM NORTH,</p>

MALL OF ASIA에는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건망고나 바나나칩을 사려면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몰 말고 다른 곳에 있는 몰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은 꼭 챙겨가세요. 감기약, 두통약, 진통제는 꼭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바람도 많이 쐬고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가 커서 감기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호텔에도 약이 거의 없어요. 안 가져갔다가 많이 후회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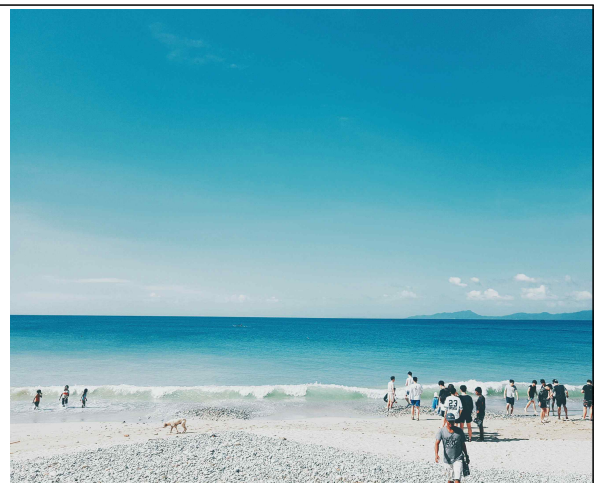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낮을 많이 가려서 그룹수업도 걱정되고 학교 사람들하고도 많이 친해지지 못할까 봐 많이 걱정했지만 처음에는 친해지기 힘들어도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만나고 수업 듣고 얘기하다보면 나중에는 많이 친해져있으니까 처음부터 친해져야 한다고 조금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에세이와 테스트 생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에세이는 주제가 쉬워서 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테스트도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룹 수업에서는 영어 실력 향상이나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학교 사람들과 친해지는 정도로만 느껴졌고 일대일 수업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발음 교정 받고 하다 보니 스피킹 실력이 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학교에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음식과 여러 가지 물품 등을 판매



민도로 섬 풍경



학교 근처 시장



마닐라 투어



가장 많이 갔던 MOA



따가이따이 화산섬